

민주화와 통일 운동 족적 '삶과 시정신' 기린다

CULTURE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민중운동 헌신 문명란 시인 10주기 추모시선집 '직녀에게' 작가서 펴내 교수·시인 추천 4부 구성 60편 수록 추모식 21일 국립5·18묘지서 첫 선

이백이 너무 기다
순류이 너무 기다
선 채로 기억되기엔 문학수가 너무 기다.
단 하나 오작고마저 꿈겨져 버린
지극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릇들을 놓아
연도난 워라드도 덩고 견적이 만나야 할 무지.
선 채로 기억되기엔 세월이 너무 기다.
그대 몇 번이고 그 눈
반야나 그럭저럭 수놓아 만 배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여인 갈수록 몇 번이고 새겨줄 것인데.
그대 몇 배는 몇 번이나 잊었는가?

'직녀에게' 일부

위 시는 시인의 대표작이다. 가수 김원중이 노래로 부르면서 유명해졌고, 민중가요로도 대중들에게 회자됐다. 노래로만 아는 사람들은 그저 유명한 노래로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았지만 사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에 나섰던 한 시인의 시대에의 패부를 깊이 찌르던 고뇌에 찬 시였다. 원로 문학평론가 임현영 선생은 "아마 분단시대의 절절한 민족적인 소망을 담아낸 절창"으로 평가했다. 광주·전남을 넘어 그의 이름은 민중들에게 투사의 시인이자 민중의 시인, 농민의 시인, 노동의 시인, 거리의 시인으로 불려왔다. 시위현장에 가면 당연히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부조리한 시대, 가까이 거리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전남 화순 출생 민중시인 문명란(전 조선대 교수·1935~2015) 이 그다. 벌써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를 맞았다. 25일이 그의 기일이다. 그의 10주기를 앞두고 삶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 시선집이 나왔다. 문명란시인기념사업

회(회장 이명하 원로소설가) 기획으로 도서출판 작가에서 시인선 24번째 권으로 나온 '직녀에게'가 그것이다. 시인선이 나오기까지 광주전남작가회의 소속 회원 중 문명란 시인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거나 그로부터 배웠던 제자, 그의 시세계를 조명한 학계 인사 등이 시 작품에 대해 추천했다. 이들은 시집과 시선집, 육필시집 등 그가 생전 남긴 26권의 시집들에서 중복되지 않은 시편들을 엄선했다. 김동근(전남대 명예교수) 허형만(전 목포대 교수) 나중영(전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백수인(전 조선대 교수), 박노해 시인 등이 시편을 추천했다. 그리고 출항 시인인 이승철 시인과 출판 방향을 잡아준 작가 출판 손정순 대표, 김정훈 교수(전남과학대 교수), 시인의 제자인 백명수 전 일월서각 대표 등이 이 시선집 출간에 큰 도움을 줬다. 문학평론가 백낙청 명예교수(서울대)와 한국문단의 원로비평가 및 재야 원로인 임현영 선생 등도 추모 시선집 출간에 공감했다. 백낙청 명예교수는 "고 문명란 시인의 10주기를 맞아 문단과 지역의 후학들이 시선집 출간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반갑고 감사한 일이다. 문 시인이 한국의 민주화와 이땅의 문학에 끼친 공로를 우리 후진들이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임현영 선생은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시인"으로 널리 소개된 선생의 활동 영역은 1980년대 광주 민주항쟁 정신을 발양시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집회와 강연장은 물론이고 세계 각처를 누볐다. 그의

시는 민중적인 호소력이 있는 데다 낭독의 기교까지 탁월해 대중집회에서 대인기였고, 그의 재기발랄한 군중 집회에서의 강연 또한 대인기였다"고 각각 말했다. 이번 시선집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에서 엄선한 시편들을 유형별로 엄선해 4부로 구성했으며, 그의 대표작 60편이 실렸다. 김중태 시인은 회고의 글을 통해 "척박한 분단 한반도에서 살아서는 민족시인, 하늘에 가서는 '통일시인'으로 이 땅의 하늘과 땅에서 당신의 노래와 함께 영원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문명란 시인 10주기 추모식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 역사박물관에서 광주 전남추모연대와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주관으로 거행된다. 추모시선집 '직녀에게'에 앞서 광주 동구 지원 아래 10주기를 맞아 광주 시민이 애송하는 100편의 시를 담아 묶은 '광주, 너는 오월의 휘앙세'가 박노해 시인의 총괄기획으로 심미안에서 출간되기도 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문학 고전' 영화로 만남 ACC 빅도어시네마, 24~26일 '레 미제라블' 등 3편 야외 상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은 '2025 ACC 빅도어 시네마'를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야외무대에서 진행한다. 2016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ACC 빅도어시네마'는 예술극장 극장1의 빅도어를 개방하고 캠핑 분위기로 영화를 감상하는 전당재단의 대표적인 야외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책 읽는 ACC' 행사와 연계해 세계 문학의 고전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을 마련해 관객들에게 문학과 영화가 함께 전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날인 24일 오후 7시에는 마거릿 미첼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어 25일 오후 7시 30분에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영화화한 '레 미제라블'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7시 30분에는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소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원작으로 한 '일 포스티노'를 상영한다. 아울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이벤트도 함께한다. '도장깨기' 이벤트를 통해 3일 동안 모든 영화를 관람하고 도장을 받으면 선착순 30명에게 영화 원작 도서를 선물로 증정한다. 'ACC 빅도어 시네마'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https://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제주 설화, 국악 통해 소중한 환경 의미 상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가족음악극 27~28일 어린이극장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이하'전당재단')은 국내 및 지역 예술단체와의 상생을 통해 극장과 어린이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연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마련된 'ACC 펫츠 플레이' 세 번째 무대로 가족음악극 '청비와 쓰담 특공대'를 오는 27일과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2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8일 오후 2시 등 총 3회. '청비와 쓰담 특공대'는 국악콘텐츠 제작팀인 '사부작당'의 노래하는 동화책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다. 서울 소녀 '청비'가 제주의 신 '영등할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제주 동물 친구들과의 좌충우돌 모험기를 담고 있다. 작품 속 주인공 '청비'는 제주의 농경신 '자청비'의 설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올해는 종로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과의 협업

으로 총 5편의 공연을 선정했으며, 4월 별자리 인형극 '별길따라 별별이야기'를 시작으로 8월 무용극 '남극에서 살아남기', 9월 전통예술 '청비와 쓰담 특공대'에 이어 12월 음악극 '셋'과 비언어 오브제극 '중첩, 빛갈 있는 꿈'을 무대에 올린다. 입장료는 1만 5000원. 고선주 기자 rainidea@



'광주, 인드라 여정' 입주기획자 프로젝트 진행

시립미술관, 19일부터 광주 예술현장 일일...연구지원 프로젝트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025 국제레지던스 스튜디오 입주기획자 연구지원 프로젝트인 '광주, 인드라 여정'(The Indra Project: Journeys from Gwangju)을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광주 예술현장 일일에서 진행한다. 레지던스 입주기획자 연구지원 프로젝트는 동시대 지역 미술 현장에 대한 연구 확장과 새로운 기획 모색을 위해 임중은(1976년, 서울 거주) 연구자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난 7월부터 기초 조사와 맥락 이해를 위한 주제 설정 등 프로그램 디자인에 돌입했다. 임중은 연구자는 '광주, 인드라 여정'이라는 주제적 맥락 하에 여행자의 시선으로 지역을 탐색하고 협업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레지던스의 공간과 활동 범위, 기존 관행을 확장하기 위한 취지다. 3개월 동안 '홈', '미술관', '스튜디오'라는 공간

적 관계를 설정, '관계 맺기'와 '협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독립된 주제로 지역을 아우르며 만나는 다른 주제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만의 여정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19일 첫 섹션 '홈, 인드라 여정'에서는 고려인 작가 알렉산더 우가이(Alexander Ugay, 1978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거주)를 고려인마을에 초청해 간담회와 마을 투어를 진행하며,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은유하는 이주와 정주를 지역 현장에서 실천해 보기로 했다. 또 10월 18일 '미술관, 인드라 여정'에서는 김정현(독립기획자, 도쿄 토카스 레지던스 입주 연구자)과 박희정(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스 프로그램 매니저)을 초청해 지역과 공동체를 주제로 미술관 외부 캠프에서 레지던스의 가능성과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하이브리드 식생 포장

Hybrid Vegetation Pavement

★ 천연펄프를 주재료로 사용 **친환경제품** ★

- 매우 가벼운 소재로 시공이 간편
- 소규모 현장 설치가 용이 (중장비 불필요)
- 프리카스트잔디블럭과 달리 하자 미발생
- 기존 잔디블럭과 비교하여 경제적
- 주차장, 인도, 산책로, 변방 등에 적용 가능

강재 롤러 가이드레일 SB4.5등급 (강도리)

차량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고 충격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켜 대형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이며 내구성이 뛰어나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며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음

"세계 최초 개발한 강재 롤러 가이드레일"

인터체인지 곡선도로 터널 입구

HANGL (주)한길산업 본 사 1공장)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35 사 무 소 2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단6번로 26 Tel.(062)944-9123 자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LS)로 172 한림슈퍼타워10층 115호 Tel.(031)476-8504